서울시장 후보자들 “불교계 현안 해결에 최선”

조계종 직할교구사무처, 5월 14일 조계사서 ‘불교계 정책 간담회’
민주당 “불교문화, 서울 핵심 정책”
국힘 “전통사찰 규제 완화에 노력”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측이 전통문화유산 가치 증진과 연등회 세계화, 선명상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불교계 정책 공약을 발표하며 불교계 현안 해결에 적극 협력의 뜻을 밝혔다.

조계종 직할교구사무처(사무처장 성웅 스님·총무원 총무부장)는 5월 14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서울시장 후보자 불교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양당 관계자들과 전통문화 보존과 국민 마음건강 증진, 지역사회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직할교구사무처장 성웅 스님, 총무원 기획실장 묘장 스님과 조계사 주지 담화 스님 등 서울지역 주요 사찰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에서는 김영배 상임선대위원장 겸 종교본부장, 오기형 정책총괄본부장 의원, 김동아 홍보·뉴미디어본부장, 박홍배 제1정책본부장이,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김병민 선대위 대변인, 김장실 전 국회의원, 유윤순 선대위 불교총괄본부장이 함께했다. 간담회는 각 당별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종단 현안과 정책 제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웅 스님은 “허심탄회하게 불교계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 측 김영배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발전하기 위해 제도적, 정책적 설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그간 당내 전통문화특위 등을 중심으로 여러 노력을 이어왔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제안해주신 내용들도 조계종과 긴밀히 협의하며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시한 ‘국민 행복 및 불교문화 진흥을 위한 불교전통문화 발전 공약’은 불교문화를 서울의 전통문화·국제관광·시민복지·문화유산 보호를 아우르는 핵심 도시 정책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종 직할교구사무처는 5월 14일 서울 조계사 관음전에서 ‘서울시장 후보자 불교계 정책 간담회’를 열고 양당 관계자들과 전통문화 보존과 국민 마음건강 증진, 지역사회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간담회 진행 모습.

핵심 공약에 따르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연등회를 서울 대표 국제문화행사로 지정 추진하고 경복궁-인사동-조계사를 잇는 보행로를 정비, 전통문화벨트를 조성해 서울 도심역사와 불교문화를 연결하는 ‘전통문화대로’를 구축한다.

특히 시민 마음건강 정책과 연계해 선명상과 템플스테이를 결합한 치유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청년·중장년·노년층 등 세대별 맞춤형 마음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불교 문화관광 콘텐츠 고도화에 나선다.

전통사찰 보존과 문화유산 지원을 위해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도심 주요 사찰 주변 역사경관 보호구역 지정과 전통사찰 보존지 소유권 무단 이전 방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수도성곽 내 사찰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유산청과 협력해 한양도성·북한산성·탕춘대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도 힘을 보탠다.

이와 함께 종교 형평성 확립을 위해 부시장이 직접 참석하는 정례 협의체를 운영하고, 종교편향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와 종교계 소통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민주당에 이어 발표에 나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 사찰 스님들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들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오늘 나온 현안들을 잘 경청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측이 발표한 ‘삶의 질 특별시 서울, 오세훈 불교전통문화 계승·선양 공약’에는 서울의 천년 불교문화유산을 대표 관광자원으로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조계사와 봉은사 등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불교전통문화 상설 공연·전시를 추진하고, 도심 전통사찰에 대한 각종 건축규제 완화와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통사찰 불사와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재정·행정 지원도 강화한다.

연등회 전승과 영산재 전수관 건립을 지원하고 시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공원지역과 등산로 인근 사찰의 화장실 증·개축 등 시설 정비도 추진한다. 아울러 불교계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 지원과 고독사 예방, 자살예방 등 건강한 시민사회를 구현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불교문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시립복지관과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에 선명상 체험공간과 관련 강좌 개설을 지원하고, 사찰음식 체험관과 템플스테이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계종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민 행복과 지역사회 상생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국민 마음 평안 프로젝트 ‘마음 쉼표, 행복 시작’ △전통문화유산 인식 개선 및 가치 증진 △비오톱 등급 지정 제도 개선 △지방정부가 앞장서는 전통사찰 보존·전승 △유네스코 세계유산 ‘한양의 수도성곽’ 지정 추진 협의체 구성 △시·도지정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강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 전승관 건립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사회 상생 △조계사-인사동 관광문화센터 건립 및 전통문화벨트 구축 △공공영역 내 종교편향 근절과 차별 없는 행정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특히 조계종은 국민 마음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치유·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선명상 대중화와 선명상 중앙센터 건립, 사회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연수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전통사찰 보존·전승을 위한 규제 개선과 함께 전통사찰 미허가 건축물 양성화, 사찰 경내 지목 일원화 사업 등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각종조 위덕 기리며 유훈 실천”

진각종, 5월 10일 진각전승원서
회당 대종사 탄생절 기념 불사


진각종은 5월 10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제124주년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절 기념불사’를 봉행했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가 봉축사를 하고 있는 모습.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의 유훈을 기리며 실천을 다짐하는 법석이 마련됐다.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5월 10일 서울 진각문화전승원 1층 무진설법전에서 ‘제124주년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탄생절 기념불사’를 봉행하고 종조의 위덕을 기리며 참회의 삶, 실천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봉축사를 통해 “종조 탄생 124주년 되는 거룩한 날, 지극한 마음으로 봉축하면서 진각종사를 더욱 굳건하게 할 서원을 세운다”며 “진각 행자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해탈되고 가정이 화목하며 이웃과 사회를 넘어 국가의 정치와 경제가 발전되면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전쟁이 식재되기를 서원하자”고 당부했다.

앞서 교육원장 정법 정사는 “우리가 닦아서 본래 안과 밖이 없는 참마음을 이루는 것을 시각이라고도 한다. 본각과 시각이 구경에 둘이 아님을 깨닫는 것을 구경각이라고 하고, 위에서 이미 말한 것을 다 깨친 것을 진각이라 한다”는 종조법어를 낭독했다.

서울교구청장 겸 총무부장 원상 정사는 강도발원을 통해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의 뜻을 이어받아 시대문제에 자주적으로 참여하고 승속이 화합하여 인류와 사회에 밝은 빛을 회향하는 진실한 진각행자로 살아가겠다”고 발원했다.

이날 불사에는 총인 덕일 대종사를 비롯해 기로스승 수성 정사, 통리원장 능원 정사, 종의회의장 증혜 정사, 교육원장 정법 정사, 총금강회장 일지정보살, 진여원 상임원장 정경 국원 등 통리원·교육원 부·실장, 서울교구 스승, 심인당 금강회장,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장, 학교법인 회당학원 산하 종립 중·고등학교장, 학생회 및 불교학생회장, 종립 탑주유치원 원아대표, 유가족, 신교도 등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경찰청 밝힌 ‘참수리등’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모양의 등이 환한 불을 밝히며 국민 안전과 평화를 기원했다.

경찰청 경승실과 불교회, 경찰전법단은 5월 13일 경찰청 1층 로비에서 ‘불기 2570년 경찰청 봉축기념 점등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경찰 불자 150여 명이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사회 곳곳에 퍼지길 발원했다. 점등된 참수리등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24일까지 경찰청 1층 로비를 밝힐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설악산 新興寺
사부대중 일동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설악동 170)
전화 033)636-7044, 7393 팩스 033)636-7556 www.sinheungsa.kr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